



남원소방서, 청명·한식 산불예방 캠페인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5일 청명과 한식에 발생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예방을 위해 덤불봉과 바래봉 등산로 일대에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50여명이 함께하는 화재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담배꽁초 투기 금지, 산림내 쥐사금지 등 불철 산불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의 내용을 담은 산불예방전단지 배포 활동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박덕규 서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로도 강풍과 함께 대형 산불이 발생하게 된다”며, 신림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등 산불위험 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윤명수)는 남원소방서와 협동으로 아영장 대피소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 내 아영장, 대피소 등 다중이용시설과 낙석 및 산사태위험지역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소독 및 방역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아영장 및 주요 텁방로 입구에서 안전실행 캠페인, 탐방객 거리두기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심장돌연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산림 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교육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5일 산림화재가 도심으로의 확대 방지를 위해 산내면 와운마을에서 비상소화장치 교육과 함께 기초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을 보급했다.

이번 교육은 건조한 불철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 상춘객 등에 의한 산불 등 화재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소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 등에 대한 교육과 무단소각 행위 집중 단속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지역 내 주요 묘지, 식목장소, 산림인접지역 주택 등의 순찰과 안전컨설팅을 통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해 화재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해선·정보영 선수 우승 트로피

2021 ITF순창 국제 주니어 테니스 투어 대회 성료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 순창군이 코로나9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제테니스 대회를 지난 4일 성황리에 끝마쳐 스포츠 메카로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

국제 테니스 연맹(ITF)과 대한테니스 협회(KTF)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순창군이 후원한 ‘2021 ITF 순창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가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동안 순창군 공설운동장 소프트테니스코트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노동급으로 만14세 이상부터 18세 이하 세계 각국의 유망주인 주니어 테니스선수들이 참가해 왔지만, 코로나9의 특수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외국 선수들이 참가할 수 없어 국내 선수들로만 경기가 치뤄졌다.



경기는 각각 남·녀 단식·복식경기로 나눠 진행되었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각 경기는 3세트 매치 경기로 열렸다.

무엇보다도 건강 보호를 위한 체크인, 건강 모니터링, 출입자 명부작성, 자체 스포츠방역단을 운영, 경기장 안팎을 꼼꼼하게 소독해 방역

관리에 더 신경 썼다.

경기결과는 단식 ▲남자 우승 이해선, 준우승 김민성 ▲여자 우승 정보영, 준우승 김유진, 복식 ▲남자 우승 노호영·김동환, 준우승 서현운·김정준, ▲여자 우승 강나현·박서연, 준우승 장수하·양세연이 트로피를 인았으며, 링킹 포인트는 단식 우승자에게는 30점, 복식 우승팀에게는 선수당 25점이 주어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의용소방대, 대원 자녀 선발 장학금 지급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5일 순창 의용소방대원 자녀 15명을 선발해 2021년 상반기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각종 재난현장 출동과 봉사활동으로 지역안전을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랑장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번 장학금 대상자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이 뛰어난 의용소방대원 자녀 중 추천과 심의를 거쳐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15명을 최종 선발했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달되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홍보활동

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 역전자구대(대장 김광중)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인출시 112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역전자구대에서는 관내 금융기관 3개소를 방문하여 전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친구지원·청원경찰이 친인척이라는 사항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함께 전하며 보이스피싱 의심이 경우 112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김광중 역전자구대장은 “보이스피싱은 일단 피해를 당하고 나면 피해회복이 어렵다.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대 713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임명된 대학생 의용소방대 대원은 앞으로 기존 대원들과 함께 소방업무 보조자로서 각종 활동을 SNS를 통한 홍보 및 영상을 제작 보급하는 등 소방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익산=장왕원 기자

익산소방서, 전북 최초 ‘대학생 의용소방대’ 출범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전북최초 대학생 의용소방대 대원 임명, 기존 의용소방대원들과 차별적인 활동 및 역할로 SNS를 통한 홍보 활동 등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지난달 31일 전북최초로 ‘익산소방서 원광대학교 대학생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을 임명하였으며, 대학생의용소방대는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1~3학년 재학생 20명(남학생 15명,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지난 3개월간의 모집공고를 통해 우수한 지원으로 선발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의 보조자로서 ▲화재의 경계와 진압 보조 ▲구조·구급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각종 행사장 안전 활동 등 소방공무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봉사활동 단체로 현재 익산소방서 관할 33개

대 713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임명된 대학생 의용소방대 대원은 앞으로 기존 대원들과 함께 소방업무 보조자로서 각종 활동을 SNS를 통한 홍보 및 영상을 제작 보급하는 등 소방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익산=장왕원 기자

무주군 적상면 한마음장학회, 고향 장학금 지원

무주군 적상면 한마음장학회(회장 고귀식)가 적상면 출신 대학생 3명에게 1인당 70만 원의 장학금을 전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5일 적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승민 학생과 김현정 학생, 이정훈 학생을 비롯한 장학회 회원 등이 자리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고귀식 회장은 “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것을 보면 인터기운 심정”이라며 “지금은 대학 공부를 위해 나가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고향과 이웃 더 크게 나리발전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98년 설립이 된 무주군 적상면 한마음장학회는 11명의 이사들이 장학금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상면 내 초·중학교 학생들과 적상면 출신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의 학업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노인복지관, 미끄럼 방지매트 지원

남원시와 남원시노인복지관은 관내 저소득 홀몸어르신 가구에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매트 1천매(가구당 1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 미끄럼 방지매트를 활용해 홀몸어르신의 미끄럼 방지매트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예방적 차원의 지원으로, 홀몸어르신의 경우, 낙상사고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응급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필요성이 크다.

지원은 읍면동 및 노인맞춤돌봄사업 수료기관을 통해 피아된 물량을 해당 기관에 전달해 저소득층(수급자나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중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의 조사를 통해 선정 지원할 예정이며, 시는 지원대상자 민족도 조사와 읍면동수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추가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